

전남서남권 지역 경제일지

(2023년 9월중)

9.1	<p>▶ 전남도, 농수산업 관련 기업과 227억 규모 투자협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남도는 광양경제자유구역청, 순천시, 광양시, 진도군과 협력해 농수산업 관련 기업과 227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순천에는 142억 원을 투자하여 합성 비료 제조 공장과 연구소를 신설하고, 광양에는 40억원을 투자해 유기질비료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며, 진도에는 45억원을 투자해 수산물 세척 및 포장 시설 등을 신설한다. ○ 또한, 이번 투자협약으로 기업 유치가 마무리되면 순천, 광양, 진도에 총 129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9.3	<p>▶ 강진 하맥축제 '지역상생' 일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달 31일 개막해 이달 2일까지 열린 제1회 강진 하맥축제가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지역상생 축제'로 자리를 잡았다. 사흘간 열린 이번 축제는 멀리 서울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서 온 관람객이 4만5,000여명에 이르러 첫 번째 치른 행사임에도 전국 구로 이름을 높였다. ○ 특히 주목을 끈 것은 강진산 참전복으로 행사장 내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는데, 사흘 동안 3,100상자, 5,700만원 어치가 팔리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양식어가들은 다소나마 위로를 받았다.
9.4	<p>▶ 전남도, 공공요금 안정·취약층 지원 등 물가관리 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남도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실시한 물가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시상금 총 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물가 관리실적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있다. ○ 전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지방공공요금 관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는 기재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정성적인 노력까지 포함하는 행안부 평가에서는 우수상을 받았으며, (1) 시군의 상하수도료 감면 (2) 민관 합동 물가 안정 캠페인 (3) 불공정 상행위 수시 지도·단속 (4) 도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자체 지원 등으로 지역 체감물가를 낮추려는 노력과 시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9.4	<p>▶ 청년이 돌아오는 섬 신안, 청년 일자리 창출에 박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안군은 올해 사업비 총 10억 3천 4백만 원으로 관내 13개 사업장에 23명의 청년 일자리와 16팀의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에는 청년 근로자 인건비의 80%를 지원하며, 근로자에게는 직무교육, 자기계발비, 지역 정착 희망 적금 등의 혜택과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1년간 총 1천만 원의 지역 정착 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 창업가에게는 전문적인 창업 교육, 컨설팅 지원뿐만 아니라 최대 2,000만 원의 창업지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9.6	<p>▶ 전남도, 조선업 인력수급 지원대책 통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남도는 조선업 호황을 뒷받침할 인력수급 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보다 외국인은 1천453명, 내국인은 320명, 총 1천773명이 늘어난 2만 2천800여 명이 취업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 개선'가 반영된 결과로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은 (1) 전문인력(E-7) 임금 요건을 국민총생산(GNI) 80%에서 70%로 완화 (2)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연간 쿼터를 2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확대 (3) 비전문취업(E-9) 고용허가인원을 내국인 수에 따라 2배 및 최대 60% 확대 등이다. 아울러 내국인 지원 정책도 추진 중으로 생산기술 인력 양성 등 13개 사업 185억 원으로 3천100여 명을 지원하고 있다.
9.7	<p>▶ 목포대양산단(주), 특수목적법인(SPC) 청산 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시는 목포대양산단 조성과 분양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가 지난 6일 사업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최종 청산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당초 분양수요가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전직원이 분양에 앞장선 결과 2022년 4월 분양을 완료하고 조성사업 대출금을 만기상환 하는 등 법인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지난 2022년 10월 법인 해산등기를 마쳤고, 지난 6일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청산을 최종 완료했다 ○ 목포대양산단은 그동안 146개 기업을 유치했고, 약 8,000억원의 투자계약과 1,20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앞으로도 목포 경제의 동력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및 물류 중심지로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9.7	<p>▶ 진도군,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페이백 행사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도군이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5일간 페이백 행사를 개최한다. 페이백 행사는 2023 동행축제 기간에 맞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진도읍 상권활성화 구역 내 점포에서 1일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일 120만원 한정, 선착순으로 (1) 3만원~5만원 미만은 3천원 (2)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은 5천원 (3) 10만원 이상은 1만원의 진도아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 진도군은 지난 7월 페이백 행사로 진도아리랑상품권 5백만원을 599명에게 지급, 고물가로 인한 가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9.11	<p>▶ 해남군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남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2024년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98가구에 태양광과 태양열 설비 설치 사업을 실시한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은 특정 지역의 주택, 건물 등에 자가소비용 태양광·태양열 설비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삼산, 화산, 현산, 북평, 북일, 옥천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억원 규모로 태양광 391개소 1,173kW, 태양열 56개소 571.2㎡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9.18	<p>▶ 진도군, 추석맞이 명절 물가안정 캠페인 펼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도군은 지난 12월 진도읍 조금시장에서 물가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진도군수와 관련 공무원은 상인들의 고충을 들으며 소통하는 등 추석을 맞이해 추석 물가안정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홍보했다. 진도군은 군민과 관광객들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성과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 이행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9.20	<p>▶ 영암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으로 조선산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암군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으로 외국인의 지역기업 취업을 지원하며 조선업 인력난 해소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 사업은 기업에서 외국인을 채용하기 전, 생산 현장 요구 기술과 직무역량을 사전 교육하고, 거주비자인 F-2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암군은 지역 전략산업인 조선산업의 수주 회복에 따른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 재정 인원을 112명 모집해 지역 조선기업 60곳에 채용을 연계했다.
9.22	<p>▶ 무안군, 첨단농업복합단지 설계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무안군은 지난 21일 첨단농업복합단지 설계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설계 공모를 거쳐 지난해 2월 용역사를 선정하여 발주한 첨단농업복합단지 설계용역은 기본 설계를 마무리한 상황으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 전국의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진흥청의 연구시설을 답사한 결과를 설계에 반영했다고 한다. ○ 첨단농업복합단지는 무안군이 민선 7기 때 시작한 사업으로 210,719㎡ 규모의 부지에 과학영농 기반시설과 전국 최대 면적의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해 운영하기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기반시설이 완공될 예정이다.
9.27	<p>▶ 강진군, 추경 11억 포함 한우산업 100억 투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진군은 최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한우산업 분야에 11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은 모두 100억 원에 이른다. ○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1)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3억 원 (2)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2억 6,000만 원 (3)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지원 1억 2,000만 원 등으로 4개의 신규사업이 반영된 이번 추경은 한우 가격 하락과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